



태풍전야의 긴장

대형 태풍 볼라벤이 북상함에 따라 호남지방 전역이 긴장하고 있다. 26일 새벽 짙은 구름이 몰려오는 광주시 남구 제석산 상공 모습.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북상 '볼라벤' 광주·전남 초비상

수조원 피해 초대형 태풍 '루사'와 맞먹어

을 들어 가장 크고 강력한 태풍인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북상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이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볼라벤은 10년 전인 지난 2002년 전국적으로 5조1479억원의 재산피해를 끊고 태풍 '루사(RUSA)'와 맞먹는 수준의 강한 바람과 함께 집중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 관계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최근 가을 장마로 100~50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서해 거쳐 한반도 관통=볼라벤은 27일 오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태풍은 27일 오후 3시 서귀포 남쪽 약 350km 해상까지 접근한 뒤, 서해상을 거쳐 28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남서쪽 약 190km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볼라벤이 28도 이상의 고수온역을 따라 이동하면서 28일까지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상을 통과한 볼라벤은 세력이 점차 약화하면서 29일에는 북한을 관통한 뒤 30일 소멸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태풍 반경이 유동적이어서 볼라벤이 한반도를 직접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초강력 태풍=볼라벤은 26일 오후 3시 현재 중심기압 920hPa에 최대 풍속 53m/s로, 태풍의 강도 면에서

'매우 강'으로 분류될 정도로 무서운 위력을 지니고 있다.

50m/s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180km/h로 태풍의 중심부에 서 있으면 시속 180km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얼굴을 창문 밖으로 내밀 때와 같은 세기의 바람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대풍속이 30m/s면 히做个집이 무너지고 35m/s일 땐 차가 엎어질 수 있다. 또 40m/s의 강풍은 사람을 물론 커다란 바위까지 날릴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 태풍인 '루사'의 경우 중심기압 965hPa, 최대풍속 33m/s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고통에 상륙했다. 당시 상륙 하루 만에 870.5mm의 비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4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듬해 찾아온 태풍 '루사' 역시 상

륙 당시 중심기압 954hPa, 최대풍속 초속 40m의 '강한' 태풍이었다.

◇광주·전남 지자체 초비상=많은 비가 내린 '가을 장마' 뒤에 태풍이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지자체는 특별 비상체계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이날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태풍대비 상황판단 회의를 가진 뒤 태풍대비 도지사 특별지시 1호를 발령하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또 전남 22개 시군에 재해위험시설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또 태풍 최초 도착지로 예상되는 진도항과 완도항의 항만건설사업장을 점검하고, 항구에 정박한 어선들에 태풍대비 준비를 당부했다.

광주시도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갖고, 각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 각 자치구와 재난 관련 부서에 풍수해 사전대비를 시달하고, 재해 취약시설과 자동음성통보시설을 점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KTX 또 고장

계룡역 인근 45분 지연

승객 300여명 큰 불편

KTX 산천 열차가 고장으로 또 멈춰 서면서 승객 수백여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 24일 오후 7시20분에 KTX 산천 613호 열차가 종남 계룡역 인근 1km 지점에서 공기압 장치 이상으로 멈춰섰다. 용산에서 출발한 이 열차는 계룡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광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코레일측이 열차를 계룡역으로 되돌려 수리를 진행하면서 운행시간이 45분가량 지연됐고, 이로 인해 승객 300여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제동을 하려면 적정 공기압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적정 수준이 안 되 정차한 것"이라며 "계룡역으로 되돌아온 열차는 공기압을 적정수준으로 높인 뒤 출발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세종시 구간

금호, 버스노선 개통

금호고속(사장 김성관)은 27일부터 광주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개통한다.

광주~세종시 노선은 하루 3회 왕복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2시간30분, 요금은 1만2100원이다.

광주 출발시각은 오전 7시20분, 오후 1시30분과 4시30분이며, 세종시 출발시각은 오전 9시25분, 오후 2시 10분과 8시30분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 광주와 세종시를 오가는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돼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이 노선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물 06시 01분
해진 19시 06분
달辱 15시 50분
달점 01시 14분

밤부터 강풍·폭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디.

광 주	흐리고한때비	24/31 °C
목 포	흐리고한때비	24/31 °C
여 수	흐리고한때비	25/30 °C
나 주	흐리고한때비	24/31 °C
완 도	흐리고한때비	24/31 °C
구 레	흐리고한때비	23/32 °C
강 전	흐리고한때비	24/31 °C
해 남	흐리고한때비	24/31 °C
장 풍	흐리고한때비	24/31 °C
순 천	흐리고한때비	23/31 °C
영 광	흐리고한때비	24/32 °C
진 도	흐리고한때비	24/31 °C
전 주	흐림	24/32 °C
군 산	흐림	24/31 °C
남 원	흐림	23/31 °C
흑 산	흐리고한때비	24/29 °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식중독자수	지역선자수	피부질환자수
서해	남부 일비다	북동~동	2.0~3.0m			
	민비다	민비다	2.0~4.0m			
남해	서부 일비다	북동~동	3.0~4.0m			
	민비다	북동~동	4.0~7.0m			
경기				매우높음	높음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다	북동~동	2.0~4.0m	09:59	03:46
	민비다	민비다	3.0~6.0m	23:11	15:44
남해	서부 일비다	북동~동	3.0~6.0m	05:27	11:33
	민비다	북동~동	5.0~8.0m	24:31	00:00

◇주간날씨

날짜	28(화)	29(수)	30(목)	31(금)	9/1(토)	2(일)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최저/최고	25/29	25/30	25/31	24/31	24/31	23/31

전남대 '총장직선 폐지' 학칙 공포

20대 총장부터 공모제 선출

처 학칙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부산대 등 타 대학의 태도를 주시하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전남대학교는 총장 직선제 폐지가 담긴 개정 학칙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전북대와 부산대도 이날 같은 내용의 개정 학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학칙은 총장 선출방식을 "총장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전남대는 그동안 학무회의 등을 거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PAR3 골프장, 연습장 매매



- | 입 | 화순 전남대 병원 3분거리
- | 규 | 전체부지면적 146,411㎡ / 사업승인면적 130.718㎡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40타석 비거리 170yd
- | 편의시설 | 클럽하우스 1,552.80㎡(리카룸, 사워실, 레스토랑)
실외연습장 1,654.92㎡(탁카룸, 강의실, 골프샵)
주차공간: 160대 주차
- | 특이사항 | 감정가 82억원 / 매매가 65억
현회원 1,000명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문의처 010-9349-5555 · 062-446-5000

